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2월 24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26장 13절-18절

설교제목 :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은 정오의 시간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오라는 시간은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오란 움직이기조차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낮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정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막연한 증오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신명기 21:23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표징입니다. 결국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노림수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써, 거짓선지자요, 거짓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어 예수의 메시아 운동을 종결짓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참 메시아되심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가 다윗 왕조를 재건하여 이스라엘의 자유와 정의와 번영을 가져오기는 커녕, 신명기 21:23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으니, 예수가 거짓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과 공포 속에서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섯 차례에 걸쳐 나타나셨는데, 5백 명이 한 곳에서 예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곱 차례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3-14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14절에서 ‘가시채’로 번역된 ‘켄트론’은 ‘소몰이 **꼬챙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끝에 쇠나 뼈를 박은 막대기인데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기 위해 농부들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하여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그 소는 더욱 심하게 찢리게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는 것은 일종의 격언인데,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하는 대상을 향해 ‘**주님 누구시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15절) 그러자 주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이 꾀박한 대상은 그리스도의 교회였지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꾀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꾀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참 메시아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서 바울을 소명자로 불러 세우시기 위함입니다.(16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는 명

령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전통과 같습니다.(겔2:1,3; 렘1:7,8) 예수님은 바울을 소명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바울의 부르신 구체적인 이유는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함입니다.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아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소명자로 부름받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모든 겁쟁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17-1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말씀합니다.(눅4:18)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속아 살던 사람들이 빛과 진리를 보고 깨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면, 영안이 어두운 이들 다시 말해서, 영적 소경의 눈이 열려져서, 구원의 진리를 보게 되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이 증인이 되면, 불신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물려받는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진술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믿음 안에서 이러한 희망적인 고백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지 고백만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기에 그 실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완벽한 삶, 진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사라질 부활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 2)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